

국보관

목조금강역사입상(산스크리트어: 바즈라파니)

국보

금강역사는 불교에서 전사의 신이자, 천둥을 상징하는 무기인 금강저를 다루는 수호신입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 년) 초기에 게이파(慶派)라 불리는 불상제작자 집단이 만든 이 2 구의 상은 12~13 세기 일본 불상의 특징적인 사실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움직임, 그리고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걸작입니다. 수정을 박아 넣은 눈, 바람에 휘날리는 옷, 불룩한 근육, 그리고 도드라진 혈관이 생기 넘치는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좌측의 상은 입을 크게 벌린 모습으로 ‘아(阿)’라는 소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첫 번째 글자의 소리로서 철학적으로는 절대적인 영역을 나타냅니다. 우측의 상은 입을 꼭 다문 모습으로 ‘훔(吽)’이라는 소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마지막 글자의 소리로서 현상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둘이 합쳐진 ‘아훔(阿吽)’은 만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주 전체를 상징합니다.

금강역사상은 사원을 수호하는 존재로서 사원의 문 양 옆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라 시대(710~794 년)에는 사원 사당 내 제단의 가장자리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2 구의 상은 머리와 몸통, 손발을 따로 만든 뒤에 조립하는 요세기즈쿠리 양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원래는 고후쿠지 절 서금당(西金堂)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1181 년에 서금당의 화재로 소실된 나라 시대의 상을 대신해 새로 제작한 것입니다.